

# 수입농산물 검역현황과 발전방향

홍 인 식

국립식물검역소장

식물검역은 국제간에 농림수산물 교역을 통하여 자국에 분포하지 않은 외래병해충이 국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내 농림산업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로서 규제하는 행위라고 볼수 있는데 1912년 일제하의 조선총독부의 [과수와 벚나무에 관한 검역규칙]을 제정공포한것이 검역의 효시라고 할 수 있으며, 정부 수립후 1961년 식물방역법을 제정하고 1963년 식물방역법 시행규칙등 농림수산물부령을 제정하여 식물검역 체계를 확립하였다. 그간 솔잎혹파리를 비롯한 몇몇 해충은 외국으로부터 유입되어 오늘날까지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최근 국제무역의 자유화, 개방화 물결로 농림수산물의 교역량과 교역국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GATT/UR농산물 협상의 전망으로 볼때 앞으로 외국 농림수산물의 수입은 더욱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부작하여 외래병충의 국내 유입 위험성이 높아지고, 식물검역의 책임과 중요성이 어늘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현재의 국립식물검역소는 1978년 정식 발족하여 현재까지 질적, 양적으로 큰 발전을 거듭하여 사하 5개지소 18개출장소의 기구에 230명이 우리나라의 농업보호를 위하여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막는데 큰기여를 해왔으나 아직 여러분야에서 보완할점이 많다고 할수 있다.

현재의 인원은 증가하는 검역물량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어렵고 또한 다른 선진국과 역계를 나란히 할수 있는 식물검역의 과학화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훈증 Slio등의 검역시설과 정밀 검역, 병해충분류동정을 위한 첨단장비의 공급이 절실히 필요하며,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검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부단한 제도개선으로서 외래병해충의 국내유입을 차단하면서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할 것이다.